

■ 법률 칼럼

# 시민권 신청 시 이름 변경



과거에는 시민권 신청 시 이름 변경이 간단했습니다. 특별한 추가 절차 없이 시민권 신청 시에 이름 변경 항목에 변경하고 싶은 새 이름을 기입하면 시민권 신청 시에 이름 변경을 알려주는 서류와 함께 새 이름이 기재된 시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름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일반 선서식이 아니고 judicial ceremony라는 새로운 선서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일반 선서식은 인터뷰 당일 에 잡힐 수도 있어서 빨리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judicial ceremony는 언제 선서식이 잡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judicial ceremony를 기다리다가 이름 변경을 민사법원에 가서 직접 처리하고 이름 변경이 없는 일반 선서식에 참석하라는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빨리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이름 변경 없이 일반 선서식에 참석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LA 이민국에서 인

터뷰를 통과하신 제 의뢰인은 이름 변경 없이 오늘 일반 선서식에 참석하시고 오늘 1월23일에 시민권 증서를 당일로 받으셨습니다.

만약 오늘 이분이 이름 변경을 하셨다면 LA 이민국 다음 judicial ceremony가 3월12일이므로 1달 20일이 지나야 선서를 하실 수 있고 시민권을 그때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결혼으로 남편 성을 따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이름이 변경되어도 일반 선서에 참석하실 수 있고 당일 시민권 증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권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 평균수명

2023년 7월 25일자 의학신문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세이다. 2020년 한국 통계청의 자료를 기준하여 남자는 80.5살, 여자는 86.5살이다. 대한민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6년을 더 산다는 뜻이다. 2023년 11월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77.5세, 건강기대수명은 64.4 세이다. 즉 77.5년 살면서 마지막 13년은 연약한 몸으로 연명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장의사로서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기에 이 통계를 이해하기로는 인종과 성별의 구분을 초월하고 미국 내에서 작성되는 모든 사망증명서의 수명을 평균한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의 50개주 사망증명은 비슷한데 망자의 인종(Race)을 밝힌다. 백인인지 스페니쉬, 한국인, 중국인, 이탈리아 등등. 뜻있는 사회학자에게는 미국에 사는 한인의 수명을 연구할 자료가 된다.

평균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 숫자 1, 48, 49, 51, 52, 99 의 평균은 50이다. 48, 49, 50, 51, 52의 평균도 50이다. 같은 평균 50이나 후자는 기준(Normal) 50을 중심으로 전자는 평균(Average) 50으로 표시된다. 이처럼 많이 모여있는 무리를 Norm 이라고 기억한다.

수년 전 필자가 일하는 장의사에서 코비드 전 약 2년 동안의 사망증명서 600개를 기초하여 사인과 수명을 조사하였다. 한인, 필리핀인들을 포함한 백인들의 통계였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평균이란 소수의 무리가 전반적인 통계에 영향을 끼치기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연령층을 구분하였다.

남자들은 85을 전후하여 90까지가 많았다. 여자들은 90을 전후하여 많았다. 역시 여자들의 수명이 길었다. 미국의 평균수명 보다는 높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이사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기증하고 버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남긴 책들은 가지고 다닌다. 미국의 대도시

에 살지만 법정의 책을 읽으면 나도 법정과 함께 산골 깊숙히 자연 속에서 사는 듯 생각과 마음이 정화된다. 꽃과 나무, 우물과 개울이 있고 새들과 손님처럼 찾아오는 동물들도 있다. 찻잔과 달이 있다. 그의 베스트 셀러 <아름다운 마무리>에 이런 글이 있다.

'죽음도 미리 배워 두어야 한다 (중략) 그렇다. 이 풍진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어렵지만 죽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중략) 살 만큼 살다가 명이 다해 가게 되면..... 이미 사그라지는 잿불같은 목숨인데 (중략)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찍부터 삶을 배우듯이 죽음도 미리 배워 뒀어야 할 것이다.'

장의사를 하면서 이민생활 현실과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가까이서 보게 된다. 그래서 법정의 이 글이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 가정 역시 겪었다. 자식을 장성하여 모두 분가해 살고 그들도 자녀키우기 바쁘기에 연로해져 독립적인 생활이 벅차게 된 부모님을 양로 시설에 의탁하게 된다. 필자의 형제자매들도 최후의 선택과 최선의 선택으로 부모님을 양로 시설로 모셨다. 이미 10여년 전 일이다.

수년 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한 후 피상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알게 되었다. 내가 운 좋으면 약 몇 살까지 살겠구나. 그 전이면 좀 아쉬웠지만 그보다 후이면 조금 보너스! 개인의 기대수명을 객관적인 통계에 접목하기 해본다

법정의 글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맺는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갖춘다'

이호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632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